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제13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일 시 Ⅱ 2020년 1월 10일(금)~11일(토) (제1일: 8:55~16:50 / 제2일: 9:00~17:00)

장 소 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ABMRC) 1층 유일한홀

연구윤리 진작을 위한 편집인과 편집관계자들의 역할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학습목표

- 윤리적인 연구출판을 위한 국제 지침의 존재와 범주를 파악한다.
- 기존의 연구윤리 범주의 한계와 연구윤리 재정립 방향을 이해한다.
- 포괄적인 연구윤리에서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진의 책임과 임무를 이해한다.
- 연구 진실성 사례에 관한 연구 기관과 학술지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에 대해 파악한다.

번역서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Guidelines for Publication Ethics

2019

발간사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연구자에게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부당 저자표시, 논문표절 등)와 부실학술활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연구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건들은 과거에도 종종 발생하였으나, 그간에는 사회적 이슈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화되고 정부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연구윤리 문제들이 이제는 사회적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결과의 발표나 출판과 관련하여 책임 있고 정당한 학술활동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 책은 번역서로서 연구논문의 발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저자, 심사자, 편집인, 발행인 등)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국제적인 윤리규범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의학 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권고안과 함께 영국 소재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와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의 주요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연구진실성과 정당한 저자됨(authorship)을 보장하고, 표절과 중복출판 등 부당하고 부적절한 학술활동을 예방하며 올바른 출판 윤리와 관행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선별하고 번역하는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외학교실 김옥주 교수님과 정준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번역자 인사말

1990년대 시작된 디지털 시대는 학술 출판 생태계를 급격히 변화시켰다. 2019년 현재 한국 연구 공동체가 마주한 도전들은 국제적 학문 생태계의 변화를 한국이 함께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짜 학회 혹은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의 문제는 전통적인 구독 기반의 학술지에서 온라인 형태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로 출판 모델이 이동하면서 일어난 문제일 뿐 아니라, 논문의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등을 중심으로 측정되는 연구 실적 평가 체계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¹⁾ 또한 논문 표절은 인사청문회의 단골 쟁점이 되어 2017년 정부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로 꼽을 정도가 되었다.²⁾ 물론 이러한 의혹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도 간단히 논문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 기존의 '모범적' 기준들과 지침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³⁾ 이처럼 연구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 연구 공동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연구 활동이 일국적, 지역적 활동이 아니라 국제적 활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권고안(Recommendations)과 같은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고 교육하는 것은 한국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에도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 책의 문서들은 출판 윤리의 국제적 표준이 가진 기본적인 원칙들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실천 방법들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번역한 권고 표준과 지침들은 국제적 학술 공동체와 소통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들이다. 학술 출판에

1) 김용진, "가짜학회 '제조광경의 비밀', 뉴스타파. 2018.7.19. (<https://newstapa.org/43812> 접속일 : 2019.4.10.)
2) 김성근, "[7대 비리 공직 배제] ⑥연구부정 - 2007년 2월 이후 표절방지 및 연구비 부정사용", 이데일리. 2017.11.22.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62166616128344&mediaCodeNo=257> 접속일 : 2019.4.10.)
3)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학술 출판 생태계의 변화는 Guédon, Jean-Claude, et al. "Future of scholarly publishing and scholarly communication: Report of the Expert Group to the European Commission." (2019). 14-23쪽을 참고하라.

참여하는 저자, 심사자, 편집인, 발행인 나아가 독자들에게 하나의 입문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에서는 ICMJE의 권고안과 함께 영국 소재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와 세계의학편집인협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의 지침들을 함께 번역하였다. ICMJE, WAME와 COPE는 출판윤리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윤리적 문제에서 서로의 문서를 참조하여 지침과 권고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978년 처음 만들어진 ICMJE 권고안은 학술 출판에 있어 국제적 표준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핵심적인 문서이다. COPE는 과학, 의학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와 출판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단체로서, 국제 연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논의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COPE 문서들은 ICMJE의 지침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논의들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과 시행 방법 [예, 흐름도(flowchart)] 및 경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ICMJE 권고안의 주요 지침들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과 추가 논의들은 COPE와 WAME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ICMJE의 권고안을 번역 수록하였다. 국제적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서이나, 마지막 공식 번역이 2013년으로, 그 동안 일어난 다양한 변화들과 그에 대한 권고들이 충분히 소개되지 못해 2018년 12월 개정된 최신 판본을 새로 번역하였다. 2장에서는 의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로 영역을 넓혀 COPE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과 표준들을 번역하였다. 3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기본 원칙과 표준들에 따라 연구 활동과 출판의 주요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 다루는 문서들을 번역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책임들을 기반으로 실제 출판 윤리의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모아두었다. 마지막 5장에서는 각 학문 분야, 혹은 학술 출판의 형태에 따라 그 적용이 매우 다를 수 있으나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담았다. 예를 들어 전문가 심사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최근 공개 또는 출판 후 전문가 심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심사 모델이 등장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책에서 사용된 번역어들은 의면협에서 번역한 2013년 판 ICMJE 번역본,⁴⁾ 그리고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개정판』⁵⁾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주로

4) KAMJE, "ICMJE Recommendations (2013 edition)"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reference&bo_id=32&per_page= 접속일 : 2019.4.10.)
5) KAMJE,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개정판』(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2013)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7&per_page= 접속일 : 2019.4.10.)

사용된 용어들은 책 마지막에 용어집으로 정리하였다. 상호 참조된 문서 중 번역된 문서가 있다면 역자주로 이 책의 해당 장과 글 제목을 표시하였다.⁶⁾ 각 문서의 첫 장에 원문 웹사이트 링크를 제시하여 독자들이 원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번역은 원래 문서의 구성과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하여 가능한 원문 그대로의 구성을 사용하고 번역 또한 의역보다는 직역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때문에 일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지침이나 경령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훼손하기보다는 가능한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책에 실린 자료들은 출판 윤리와 관련된 핵심적 국제 표준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로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ICMJE와 COPE를 비롯한 국제 학술 출판인 협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온라인 학술 자료와 토론장을 활용할 수 있다.⁷⁾ 하지만 이러한 번역물과 자료들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출판 모델과 관례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학술 출판의 미래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출판 윤리는 학문적 진실성의 보호라는 중요한 원칙을 고수하는 것뿐 아니라 다가올 변화에 대한 각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번역물을 통해 한국의 연구 공동체 구성원들이 국제적 토론장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국내의 상황 그리고 각 학문 분야에 적합한 실천 방법들을 찾아 다짐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준호, 김우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6) 원문의 각주 및 참고문헌 번호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문은 그대로 아라비아 숫자를, 역자주는 로마 숫자를 사용하였다.
7) COPE의 홈페이지에는 각 회원 학술지들이 의뢰한 약 600여 건의 사례와 그에 대한 권고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학술 출판의 편집이나 출판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 중 일반화된 지침에서 찾기 어려운 해당들을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례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다. (COPE, "Guidance - Cases"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Case> 접속일 : 2019.4.10.))

윤리적인 연구출판을 위한 국제 지침

학술 출판에 참여하는 저자, 심사자, 편집인, 발행인이 참조해야 할 규범

-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권고안:** 1978년 처음 만들어진 ICMJE 권고안은 학술 출판에 있어 국제적 표준의 현 주소를 보여 주는 핵심적인 문서
- **영국 소재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과학, 의학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와 출판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단체; ICMJE의 지침에서 다루지 못한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논의 보완; 구체적인 사례들과 시행 방법[예, 흐름도(flowchart)] 제공
- **세계의학편집인협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지침**
- ICMJE, WAME와 COPE는 출판윤리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윤리적 문제에서 서로의 문서를 참조하여 지침과 권고를 발전
- ICMJE 권고안의 주요 지침들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과 추가 논의들은 COPE와 WAME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1장.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CMJE) 권고	9
a. 의학 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연구의 수행, 보고, 편집과 출판에 대한 권고안	11
<i>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i>	
2장. 일반 원칙	55
a. 책임있는 연구 출판 : 편집인을 위한 국제 표준	57
<i>Responsible research public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i>	
b. 책임있는 연구 출판 : 저자를 위한 국제 표준	68
<i>Responsible research public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hors</i>	
c.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모범적 실천	75
<i>Principles of Best Practice and Transparency in Scholarly Publishing</i>	
d. COPE의 핵심 활동	81
<i>Our Core Practice</i>	
e. COPE 핵심 활동을 준수하기 위한 편집국 조직 구성 지침 : 흐름도	84
<i>Suggested Guide for Approaching Organisation of the Editorial Office to Comply with COPE 's Core Practices: Flowchart (2018)</i>	
3장. 저자, 기여자, 심사자, 편집인, 발행인, 학술지 소유주의 역할과 책임	87
a. 저자됨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COPE 토론 문서	89
<i>What constitutes authorship? COPE Discussion Document</i>	

b. 저자됨의 문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97
<i>How to Recognise Potential Authorship Problems : Flowchart (2018)</i>	
c. 약탈적 혹은 유사 학술지의 확인	99
<i>Identifying predatory or pseudo-journals</i>	
d. 전문가 심사 의학 학술지에서의 이해상충	111
<i>Conflict of Interest in Peer-Reviewed Medical Journals</i>	
e. 경쟁적 이해들의 관리에 관한 토론/지침 문서	118
<i>Discussion/guidance document on handling competing interests</i>	
f. 이해상충을 공개하지 않았음이 의심될 경우	122
<i>What to do if undisclosed conflict of interest (Col) was suspected : Flowchart (2015)</i>	
g. 신임 편집인을 위한 윤리적 편집에 대한 짧은 안내서	125
<i>A Short Guide to Ethical Editing for New Editors</i>	
h. 전문가 심사자를 위한 COPE 윤리 지침	135
<i>COPE Ethical Guidelines for Peer Reviewers</i>	
i. 심사자가 저자의 개념이나 데이터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흐름도	143
<i>What to do if you suspect a reviewer has appropriated an author's ideas or data: Flowchart</i>	
4장.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편집과 출판 상의 문제들	145
a. 저자됨의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신진 연구자를 위한 지침	147
<i>How to handle authorship disputes: a guide for new researchers</i>	
b. 저자됨의 변경과 저자됨의 문제들, 유령 저자, 손님 저자, 선물 저자가 의심될 경우 : 흐름도	155
<i>Changes in authorship, authorship problems, and suspected ghost, guest or gift authorship: Flowcharts (2015)</i>	

c. 연구 진실성 사례에 관한 연구 기관과 학술지 간의 협력 : COPE 지침	163
<i>Cooper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ions and journals on research integrity cases: guidance from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i>	
d. 잠재적 부정행위에 관한 편집장 간의 정보 공유	175
<i>Sharing of Information Among Editors-in-Chief Regarding Possible Misconduct</i>	
e. 투고 원고에서 윤리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 흐름도	178
<i>What to do if you suspect an ethical problem with a submitted manuscript: Flowchart (2015)</i>	
f. 편집인은 표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COPE 토론 문서	180
<i>How should editors respond to plagiarism? : COPE Discussion Document</i>	
g. 표절, 데이터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 흐름도	197
<i>What to do if you suspect plagiarism and fabricated data: Flowchart (2015)</i>	
h. 텍스트 재활용 지침	202
<i>Text Recycling Guidelines</i>	
i. 중복(이중)출판이 의심될 경우 : 흐름도	208
<i>What to do if you suspect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Flowchart (2015)</i>	
j. 익명 제보자에 대한 대응 : COPE 토론 문서	211
<i>Responding to anonymous whistle blowers: COPE Discussion Document</i>	
k. 여러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의 처리 : COPE 토론 문서	215
<i>Addressing ethics complaints from complainants who submit multiple issues: COPE Discussion Document</i>	
l. 제보자에 대한 대응 : 흐름도	219
<i>How to respond to whistle blowers: Flowchart (2015)</i>	
m. 논문 철회 지침	222
<i>Retraction Guidelines</i>	

5장. 기타 주제	229
a. 의학 증례 보고 출판에서 동의를 보장하는 학술지의 모범적인 관례 : COPE의 지침 ...	231
<i>Journals' Best Practices for Ensuring Consent for Publishing Medical Case Reports: guidance from COPE</i>	
b. COPE 토론 문서 : 전문가 심사는 누가 "소유"하는가?	236
<i>Who "owns" peer reviews?</i>	
c. 학위논문 출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모범적인 관례에 대한 토론 문서	245
<i>Discussion document on best practice for issues around theses publishing</i>	
용어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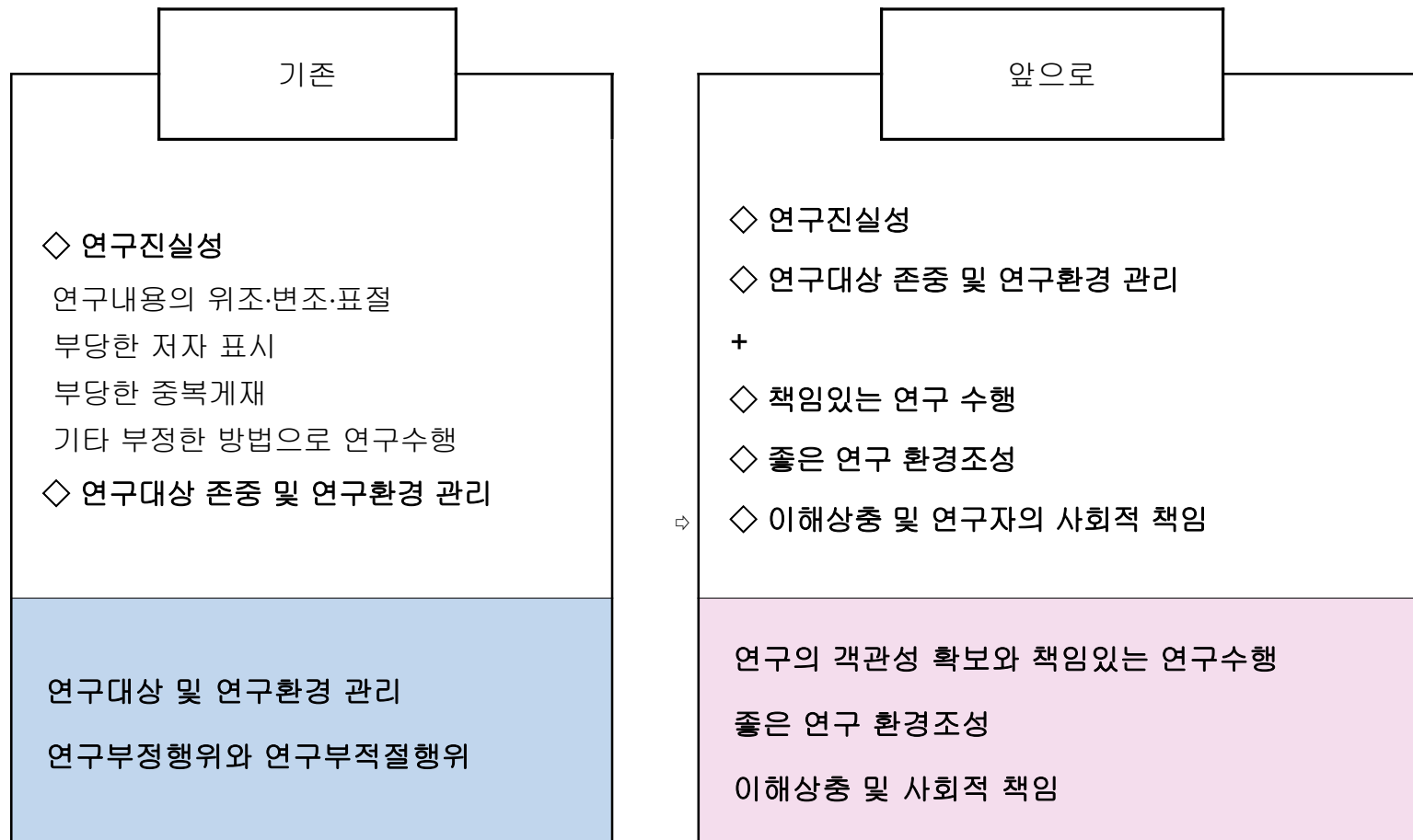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윤리 재정립에 대한 제언:
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연구윤리 및 이해상충 제도개선 분과 결과보고서(2019. 3.)

연구윤리 재정립 방향

방향

- ◇ **(기본방향)**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연구진실성 검증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 윤리의 범주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이고 **괄적인 연구윤리범주로 확대**
- **기존 연구진실성, 연구대상 및 연구환경 내용에 책임있는 연구수행, 좋은 연구환경, 이해상충 및 사회적 책임을 포함**

연구윤리 재정립 방향



포괄적인 연구윤리 재정립 방향

1. 연구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2. 좋은 연구 환경조성	3. 연구대상 및 연구환경 관리	4.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5 이해상충 및 사회적 책임
원자료 및 연구기록	연구책임자 /지도교수 책무	인간대상연구	연구부정행위	연구비관리 및 운용
자료의 올바른 처리	연구원/대학원생 책무	동물실험	연구부적절행위	이해상충
논문작성과 발표	연구윤리 교육 및 확산노력	실험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성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저자결정	건강한 연구환경조성			
동료평가제도				10

포괄적인 연구윤리 재정립 방향

1. 연구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2. 좋은 연구 환경조성	3. 연구대상 및 연구환경 관리	4.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5 이해상충 및 사회적 책임
원자료 및 연구기록*	연구책임자 /지도교수 책무 (연구자, 연구기관, 지원기관)	인간대상연구** (IRB)	연구부정행위*** (CRI)	연구비 관리 및 운용* (연구기관, 지원기관)
자료의 올바른 처리*	연구원/대학원생 책무 (연구자, 연구기관)	동물실험** (IACUC)	연구부적절행위*** (CRI)	이해상충 ** (IRB or ICOC)
논문작성과 발표**	연구윤리 교육 및 확산노력 (연구기관, 학회 등)	실험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성* (IBC)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저자됨의 결정***	건강한 연구환경조성 (연구자, 연구기관, 학회, 지원기관)			
동료평가제도***				

*, **, ***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진의 책임 정도

포괄적 연구윤리의 범주		세부내용
1. 연구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1-1. 원자료 및 연구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노트 작성법 및 보관(책임자, 장소, 기간 등) ▪ 연구 원자료의 보관(책임자, 장소, 기간 등) ▪ 연구기록 및 원자료의 소유권 관리 책임
	1-2. 자료의 올바른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의 올바른 처리 방법 ▪ 올바른 통계처리
	1-3. 논문작성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작성의 기본 윤리 ▪ 모든 글은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쓰기 ▪ 올바른 인용과 출처 표기 ▪ 연구논문, 보고서, 학회 발표 ▪ 적절한 발표 방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 ▪ 약탈적 학술지와 약탈적 학회에 대한 인식
	1-4. 저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의 자격과 책무 ▪ 저자변경
	1-5. 동료평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평가제도의 역할과 중요성

2. 좋은 연구환경 조성	2-1. 연구책임자/지도교수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 인력 관리 공정한 공로배분 ▪ 연구결과 및 정보의 공유와 소유 ▪ 공동연구에서는 협력관계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속(계약) ▪ 대학원생 또는 연구원 지도방법에 대한 고민과 노력 ▪ 권위와 차별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실천 ▪ 소수자에 대한 배려
	2-2. 연구원/대학원생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대학원생의 역할과 책임
	2-3. 연구윤리 교육 및 확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연구윤리 교육 방법 ▪ 연구윤리 교육의 정규화 (예: 매년 1회 이상 등)
	2-4. 건전한 연구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건전한 평가 시스템 확립 ▪ 연구 결과의 공유

3. 연구대상 및 연구환경 관리	3-1. 인간대상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동의 확보 ▪ 피험자 프라이버시 보호 ▪ 취약자 보호
	3-2. 동물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실험의 윤리적 원칙
	3-3. 실험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처리 ▪ 위험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관리 ▪ 실험실 안전수칙, 생물안전수칙

<p>4.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p>	<p>4-1. 연구부정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 그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p>4-2. 연구부적절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쪼개기(Salami publication) ■ 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 의심스러운 연구 행위

5. 이해상충 및 사회적 책임

5-1. 연구비관리 및 운용

■ 책임 있는 연구비 운용과 관리

5-2. 이해상충

- 이해상충과 연구의 객관성
- 이해상충 관리 방법 (회피, 제척, 천명 등)
- 이해상충의 범위
 - 재정적 이해상충 (연구지원, 급여, 연구비, 연구비, 강연료, 자문료, 주식이나 채권등의 소유 등)
 - 직무에 의한 이해상충 (사외이사, 실험실 창업 등)

5-3. 과학기술연구의 사회적 책임

-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학회/학술지 발행기관의 역할과 책임

1. 연구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1-1. 원자료 및 연구기록

- 가이드라인 안내

1-2. 자료의 올바른 처리

- 통계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논문은 정규 심사 이외에 통계 전문가심사

1-3. 논문작성과 발표

- 논문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인용과 출처표기 방법 가이드라인 제시
- 투고 규정에 명시

학회/학술지 발행기관의 역할과 책임

1-4. 저자결정

- 저자 자격에 대한 명시적 투고 규정
- 저자의 구체적인 역할을 밝히도록 규정

1-5. 동료평가제도

- 편집자/편집위원/위촉심사위원의 역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 이해상충 회피 및 천명
- 동료평가제도에 대한 교육
- 심사자의 공정성과 비밀 보장
-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적절성 확보
- 편집인의 이해관계 천명
- 심사자 교육

학회/학술지 발행기관의 역할과 책임

3. 연구대상 및 연구환경 관리

3-1. 인간대상연구

- IRB 심의된 연구 결과만을 게재

3-2. 동물실험

- 동물실험 윤리규정이 적용된 논문만을 게재

3-3. 실험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성

-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지 검토

학회/학술지 발행기관의 역할과 책임

4.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4-1. 연구부정행위

-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 저자의 연구기관에 통보
- 연구기관과 조사 협력

4-2. 연구부적절행위

- 부적절행위가 의심되는 논문 저자의 연구기관에 통보
- 연구기관과 조사 협력

학회/학술지 발행기관의 역할과 책임

5. 이해상충 및 사회적 책임

5-1. 연구비 관리 및 운용

- 의심되는 논문 저자의 연구기관에 통보
- 연구기관, 연구비지원기관과 조사 협력

5-2. 이해상충

- 논문에서 이해상충 관계를 밝히도록 규정

5-3. 과학기술연구의 사회적 책임

- 혁신적인 연구결과에 대해서 토론 및 공론화하는 장 마련

포괄적인 연구윤리 재정립 방향

1. 연구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2. 좋은 연구 환경조성	3. 연구대상 및 연구환경 관리	4.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5 이해상충 및 사회적 책임
원자료 및 연구기록*	연구책임자 /지도교수 책무 (연구자, 연구기관, 지원기관)	인간대상연구** (IRB)	연구부정행위*** (CRI)	연구비 관리 및 운용* (연구기관, 지원기관)
자료의 올바른 처리*	연구원/대학원생 책무 (연구자, 연구기관)	동물실험** (IACUC)	연구부적절행위*** (CRI)	이해상충 ** (IRB or ICOC)
논문작성과 발표**	연구윤리 교육 및 확산노력 (연구기관, 학회 등)	실험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성* (IBC)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저자됨의 결정***	건강한 연구환경조성 (연구자, 연구기관, 학회, 지원기관)			
동료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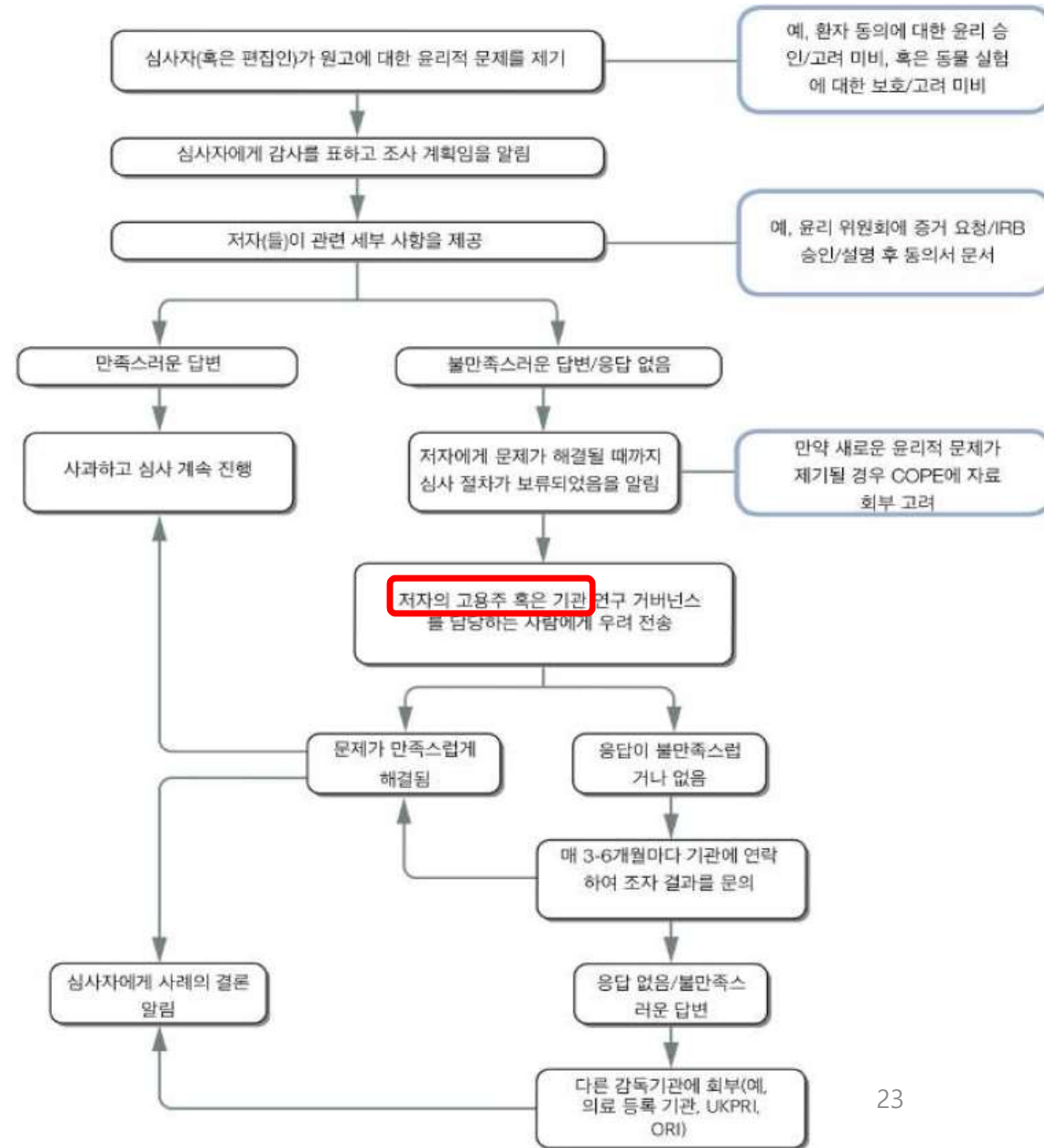
*, **, ***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진의 책임 정도

연구대상 및 연구환경 관리에서 학술지의 역할

4-e. 투고 원고에서 윤리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 흐름도³⁴⁾

What to do if you suspect an ethical problem with a submitted manuscript:
Flowchart (2015)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번역서)』 179쪽



포괄적인 연구윤리 재정립 방향

1. 연구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2. 좋은 연구 환경조성	3. 연구대상 및 연구환경 관리	4.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5 이해상충 및 사회적 책임
원자료 및 연구기록*	연구책임자 /지도교수 책무 (연구자, 연구기관, 지원기관)	인간대상연구** (IRB)	연구부정행위*** (CRI)	연구비 관리 및 운용* (연구기관, 지원기관)
자료의 올바른 처리*	연구원/대학원생 책무 (연구자, 연구기관)	동물실험** (IACUC)	연구부적절행위*** (CRI)	이해상충 ** (IRB or ICOC)
논문작성과 발표**	연구윤리 교육 및 확산노력 (연구기관, 학회 등)	실험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성* (IBC)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저자됨의 결정***	건강한 연구환경조성 (연구자, 연구기관, 학회, 지원기관)			
동료평가제도***				

*, **, ***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진의 책임 정도

책임있는 연구 출판 : 저자를 위한 국제 표준

6.1 연구 출판물의 저자됨은 연구와 보고에 대한 개인의 기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6.2 학술지 편집인은 해당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적합한 저자 기준을 게시하고 홍보해야 하지만, 저자됨의 분쟁에서 판결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저자됨의 정확한 귀속에 대한 책임은 소속 기관의 지침 하에 일하는 저자 자신들에게 있다. 연구 기관은 저자됨과 인정에 대한 공정하고 타당한 표준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관은 저자됨의 분쟁을 판결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따를 것을 보증해야 한다.

6.3 저자됨의 기준을 충족하는(즉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만이 저자됨이 가능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4 모든 저자들은 저자 명단에 오를 것에 동의해야 하며 투고 및 승인된 출판물의 판본을 확인해야 한다. 저자 목록에 대한 변경 사항은 목록에서 삭제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저자가 승인해야 한다.



저자됨의 문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저자됨 정책:
저지됨과 기여자에 대한 명확한 정책/규가 없거나, 작업에 기여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과 잠재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 publicatioethics.org/autho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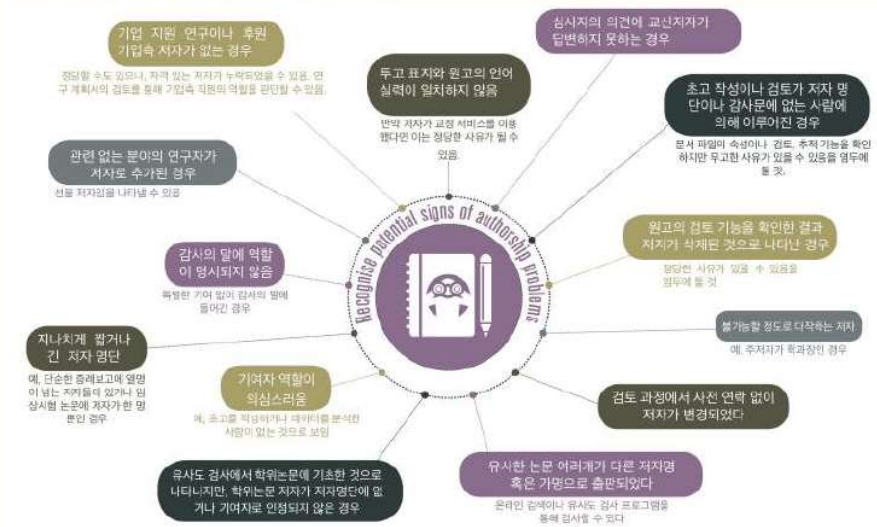
관련 COPE 사례들 :
도둑맞은 논문 : <https://bit.ly/2n5qMhX>
해산된 컨소시움의 저자됨 문제 : <https://bit.ly/2FDQgom>
저자의 철회 요청 : <https://bit.ly/2E4Jae>

관련 흐름도 :
저자 문제를 확인하는 법 : <https://bit.ly/2EjK3B4>
유형, 순서, 선을 저자가 인식하는 경우 : <https://bit.ly/2ER8akd>
논문 출판 후 저자 사별을 수정하는 경우 : <https://bit.ly/2EgS1ID>
출판 과정에서 체계적인 추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 <https://bit.ly/2RJs3CN>

참고문헌 :
1. COPE Discussion Document on Best Practice for Issues Around Theses Publishing. <https://bit.ly/2s6nNpu>
2. COPE Webinar: Common Authorship Issues Faced by COPE Members. <https://bit.ly/2nEmkRf>
3. ELearning module on Authorship (Members only). <https://bit.ly/2B9VJ0r>
4. Promoting Awareness of Good Authorship Practice. *Siu-wai Leung* <https://bit.ly/2GPy7Ex>
5.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the Meaning, Ethics and Practices of Authorship Across Scholarly Disciplines. *Ana Marušić et al* <https://bit.ly/2qxQb9p>
6. Publication Practices in Multidisciplinary Teams: A Closer Look at Authorship Assignment and Ranking. *Drs Zubin Master and Bryn Williams-Jones* <https://bit.ly/2nKQ1yL>
7. Transparency in Authors' Contribu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Promote Integrity in Scientific Publication. *PNAS, Marcia K. McNutt et al* <https://bit.ly/2xyPQ0l>
8. Ghost Authorship in Industry-Initiated Randomised Trials. *Peter C. Gøtzsche et al* <https://bit.ly/2SVGIBT>
9. Authors, Ghosts, Damn Lies, and Statisticians. *Elizabeth Wager* <https://bit.ly/2E3ccG6>

ISSN 1: 2018년 11월
© 201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BY-NC-ND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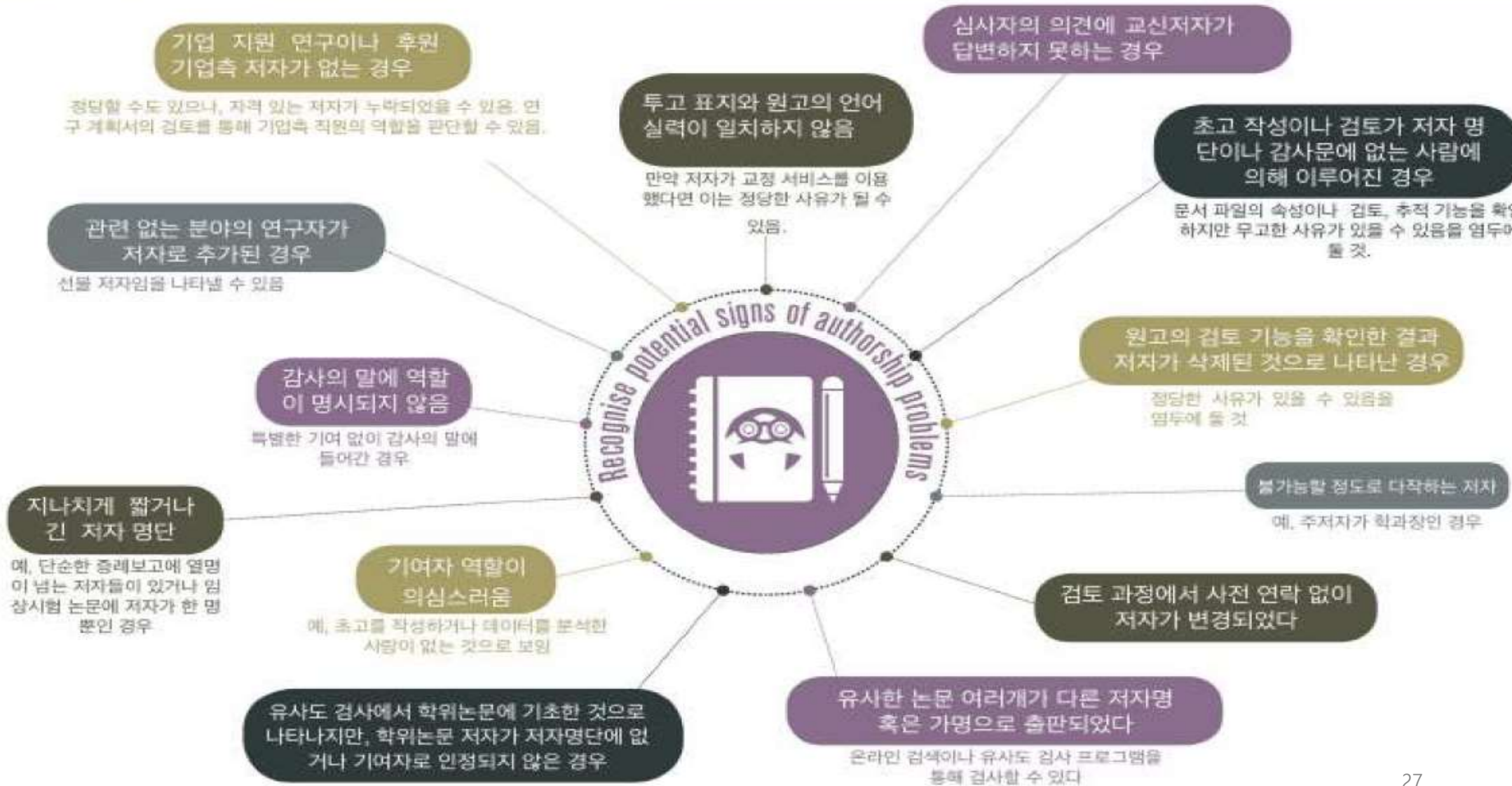
저자됨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징후들



저자됨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범적 관례



저자됨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징후들



저자됨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범적 관례



저자됨 정책:

저자됨과 기여자에 대한 명확한 정책(누가 얼마나 작업에 기여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과 잠재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 publicationethics.org/authorship

관련 흐름도 :

저자 문제를 확인하는 법 : <https://bit.ly/2EjK3B4>

유령, 손님, 선물 저자가 의심되는 경우 : <https://bit.ly/2E28akf>

논문 출판 후 저자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

<https://bit.ly/2Eo311D>

출판 과정에서 체계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 <https://bit.ly/2RJo3CN>

참고문헌 :

1. COPE Discussion Document on Best Practice for Issues Around Theses Publishing. <https://bit.ly/2s6nNpu>
2. COPE Webinar: Common Authorship Issues Faced by COPE Members. <https://bit.ly/2nEmskR>
3. ELearning module on Authorship (Members only). <https://bit.ly/2BWJ6tj>
4. Promoting Awareness of Good Authorship Practice. *Siu-wai Leung* <https://bit.ly/2GPY7FEx>
5.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the Meaning, Ethics and Practices of Authorship Across Scholarly Disciplines. *Ana Marušić et al* <https://bit.ly/2qxQbqp>
6. Publication Practices in Multidisciplinary Teams: A Closer Look at Authorship Assignment and Ranking. *Drs Zubin Master and Bryn Williams-Jones* <https://bit.ly/2nKQtyL>
7. Transparency in Authors' Contribu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Promote Integrity in Scientific Publication. *PNAS, Marcia K. McNutt et al* <https://bit.ly/2xyPQ01>
8. Ghost Authorship in Industry-Initiated Randomised Trials. *Peter C. Getzsche et al* <https://bit.ly/2SVGIBT>
9. Authors, Ghosts, Damned Lies, and Statisticians.²⁸ *Elizabeth Wager* <http://bit.ly/2E3zeQ6>

포괄적인 연구윤리 재정립 방향

1. 연구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2. 좋은 연구 환경조성	3. 연구대상 및 연구환경 관리	4.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5 이해상충 및 사회적 책임
원자료 및 연구기록*	연구책임자 /지도교수 책무 (연구자, 연구기관, 지원기관)	인간대상연구** (IRB)	연구부정행위*** (CRI)	연구비 관리 및 운용* (연구기관, 지원기관)
자료의 올바른 처리*	연구원/대학원생 책무 (연구자, 연구기관)	동물실험** (IACUC)	연구부적절행위*** (CRI)	이해상충 ** (IRB or ICOC)
논문작성과 발표**	연구윤리 교육 및 확산노력 (연구기관, 학회 등)	실험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성* (IBC)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저자됨의 결정***	건강한 연구환경조성 (연구자, 연구기관, 학회, 지원기관)			
동료평가제도***				

*, **, ***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진의 책임 정도

전문가 심사자를 위한 COPE 윤리 지침

- 전문가로서의 책임 : 적절한 심사자를 지정하기 위해, 편집인은 가능한 원고의 내용 범위와 심사자를 일치시켜 가능한 최상의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비 심사자는 학술지에 개인 정보 및 이력을 통해 전문성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확인 가능하며 정확한 연락처 정보도 포함된다. 심사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도용은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이해상충 : 모든 잠재적 이해상충은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할 잠재적 이해상충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면, 이를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 이해상충은 개인적, 재정적, 지적, 전문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익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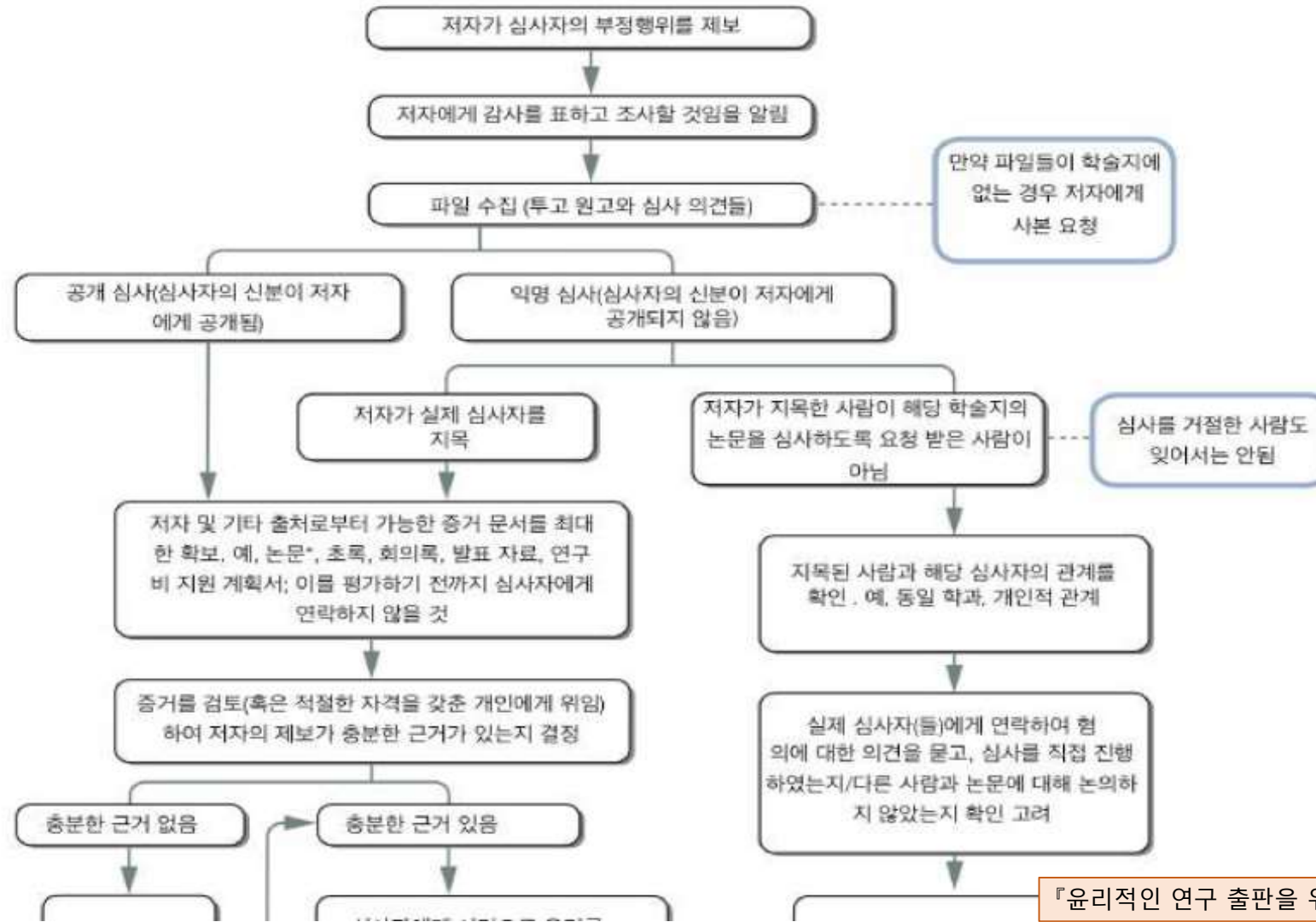
전문가 심사는 누가 “소유”하는가?

시점	출판 전	사전 출판	출판 후
식별 가능성	이중 눈가림	단일 눈가림	공개
조정	편집인이 심사자 간, 심사자와 저자 간 의견을 모두 조정	심사자가 상호 간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조정	심사자와 저자 모두 공개적으로 서로와 상호 의견 조정
게재	전문가 심사가 게재되지 않음	전문가 심사가 게재되지만 익명화됨	전문가 심사가 기명으로 게재됨
주관	심사는 학술지가 주관함	심사는 제3자가 주관함	심사는 저자들이 주관함
소유권	심사는 학술지 또는 제3자가 소유	심사는 심사 작성자가 소유	공동 또는 혼합 소유권을 가짐

3-i. 심사자가 저자의 개념이나 데이터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흐름도28)

What to do if you suspect a reviewer has appropriated an author's ideas or data:

Fl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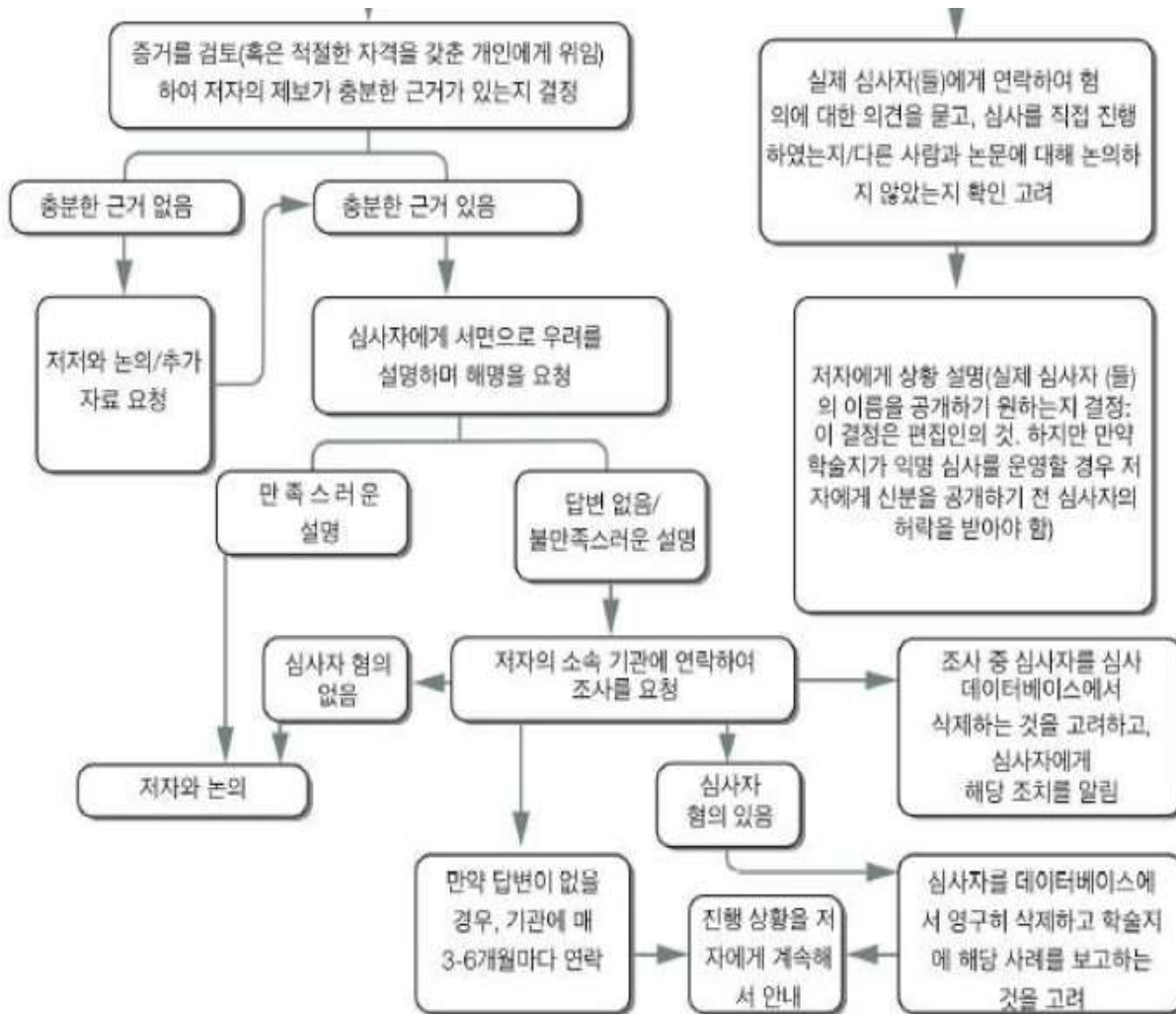
참고
심사자 규정에서 심사자는 투고된 자료의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게재 이전에 다른 어떤 경로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참고
사용하는 심사 제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만약 저자가 논문을 출판할 경우 이는 표절 사례로 다루어질 수 있다.(표절 흐름도 참고)

3-i. 심사자가 저자의 개념이나 데이터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흐름도28)

What to do if you suspect a reviewer has appropriated an author's ideas or data:
Flowchart



COPE를 위해
Sideview의 Liz
Wager가 개발.
(www.lizwager.com)
© 2016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C BY-NC-ND 3.0)

이 흐름도의 재사용에
대한 통상 사용권 문의:
cope_administrator@
publicationethics.org

포괄적인 연구윤리 재정립 방향

1. 연구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2. 좋은 연구 환경조성	3. 연구대상 및 연구환경 관리	4.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5 이해상충 및 사회적 책임
원자료 및 연구기록*	연구책임자 /지도교수 책무 (연구자, 연구기관, 지원기관)	인간대상연구** (IRB)	연구부정행위*** (CRI)	연구비 관리 및 운용* (연구기관, 지원기관)
자료의 올바른 처리*	연구원/대학원생 책무 (연구자, 연구기관)	동물실험** (IACUC)	연구부적절행위*** (CRI)	이해상충 ** (IRB or ICOC)
논문작성과 발표**	연구윤리 교육 및 확산노력 (연구기관, 학회 등)	실험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성* (IBC)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저자됨의 결정***	건강한 연구환경조성 (연구자, 연구기관, 학회, 지원기관)			
동료평가제도***				

*, **, ***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진의 책임 정도

연구윤리 위반 행위 규명과 처리 절차

(Process for identification of and dealing with allegations of research misconduct)

- 표절, 인용 조작, 데이터 위조/변조 등을 포함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논문의 출판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과 편집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부정행위를 장려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COPE의 지침(이에 준하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COPE/DOAJ/OASPA/WAME. Principles of Best Practice and Transparency in Scholarly Publishing (2018년 1월 15일)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번역서)』 75-80쪽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

학술지는 출판윤리 정책을 홈페이지에 밝혀야 한다.

출판윤리에서는

- (1) 저자됨(authorship) 과 기여자(contributorship)의 자격,
- (2) 불만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방법,
- (3) 이해상충/경쟁적 이해에 대한 정책,
- (4) 자료 공유 및 재사용에 관한 정책,
- (5)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정책,
- (6) 지적재산권 정책,
- (7) 출판 후의 논의 및 수정에 관한 정책 등을 다루어야 한다.

연구 진실성 사례에 관한 연구 기관과 학술지 간의 협력 : COPE 지침

- 연구 기관(대학과 같은) 및 학술지는 모두 연구 및 출판 진실성에 관한 중요한 의무와 공통관심사가 있으며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 기관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책임을 지며 건강한 연구 환경을 장려한다.
- 학술지는 편집인의 수행, 연구 기록 보호 및 그들이 게재하는 모든 것의 신뢰성 보장을 책임진다.
- 따라서 기관과 학술지가 연구 진실성 관련 사례에 대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연구 진실성 사례에 관한 연구 기관과 학술지 간의 협력: 연구기관에 대한 COPE 권고사항

- 연구 진실성 책임자(또는 사무소)를 두고 그들의 연락처 정보를 눈에 띄게 게재한다.
- 부정행위 행위가 확인되어 출판된 논문의 신뢰성 또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사례를 학술지에 알린다.
- 학술지가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이에 응답해야 하며, 여기에는 예를 들어 저자됨의 분쟁, 오해의 여지가 있는 보고, 이해상충 혹은 정직한 실수 등의 다른 요소들이 포함된다.
- 연구 부정행위 또는 용납될 수 없는 출판 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이 출판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의심되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 진실성 사례에 관한 연구 기관과 학술지 간의 협력: 학술지에 대한 COPE 권고사항

- 연구 및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연락 지점 역할을 하는 편집장의 연락처 정보를 게재한다.
- 만약 연구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소속 기관에 알리고,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한다.
- 조사에 협력하고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기관의 질문에 응답한다.
-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철회 또는 정정 기사(철회에 관한 COPE 지침에 따름) 게재를 준비한다.
- 연구 부정행위 사례를 조사하는 기관 및 기타 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기관- 학술지: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 서로 알리기

- 만약 기관이 소속 연구자 중 한 사람의 부정행위 행위를 조사하는 중 출판된 논문의 신뢰성이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예 : 위조 또는 표절)를 발견하면, 기관은 해당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의 편집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 만약 사례가 다른 조직(예 : 국가 기관)에서 조사되는 경우, 기관은 조사 결과를 관련 학술지(들)에 전달해야 한다.
- 또한, 기관은 학술지의 적절한 대응책(예 : 철회 또는 우려 표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 또는 결과에 대한 편집인의 문의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 기관은 학술지 편집인에게 저자됨의 부적절한 귀속, 중복 발행, 중복 투고, 이해상충 공개 불이행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와 같은 부적절한 출판 행위 사례를 알리고 학술지의 문의에 답해야 한다(기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벗어난 경우에도 해당).
- 또한, 기관은 출판된 작업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도 연구자가 학술지에 알리도록 권장해야 한다.
- 편집인은 조사에 협조하고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기관의 문의에 응답해야 한다.

기관과 학술지 간의 의사소통 - 기관의 의무

- 학술지 편집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접수되었음을 회신하고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신속히 대응한다.
- 출판물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예를 들어,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 – 제보에 대한 초기 평가를 마친 뒤 – 확인해 주거나 예상 조사 기간을 명시)이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정보를 편집인에게 알려주어(혹은 편집인의 질의에 응답) 편집인이 필요한 경우 우려 표명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편집인이 철회 또는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술지와 부정행위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소통(예를 들어 언론 브리핑 및 학술지에 대한 공지)의 명확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한다.

기관과 편집인은 일반적으로 진행 중인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의사소통이 당사자 간의 기밀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편집인은 우려 표명을 이용하여 독자에게 출판물의 신뢰성 또는 진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제보에 대해 알릴 수 있다.

기관과 학술지 간의 의사소통 - **학술지**의 의무

-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접수되었음을 회신하고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신속히 대응한다.
- 잠재적 부정행위에 대해 기관에 알리고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한다(예 :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텍스트 유사도 분석, 혹은 부적절한 이미지 조작의 증거).
- 학술지의 전문가 심사자로 활동하는 연구자의 부정행위(예 :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표절)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COPE 흐름도를 따르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연락한다

4-f. 편집인은 표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COPE 토론 문서³⁵⁾

How should editors respond to plagiarism? : COPE Discussion Document

COPE위원회를 대표하여 Elizabeth Wager가 작성
2011년 4월 26일

〈표 1〉 표절 유형별 특징

특징	경미한 유형				가장 중대한 유형
정도	몇 단어	몇 문장	한 문단	여러 문단	전체 논문
표절된 자료의 독창성	흔히 사용되는 문구/개념		문구/개념이 소수의 저자에 의해서만 사용됨		독창적인 문구/개념
위치/문맥/자료의 종류	표준화된 방법		다른 연구자들의 소견을 설명함		데이터/소견
인용/귀속	출처가 완전히 그리고 분명하게 인용		출처가 일부/불분명하게 인용됨		인용 없음
의도	기만의 의도 없음				기만의 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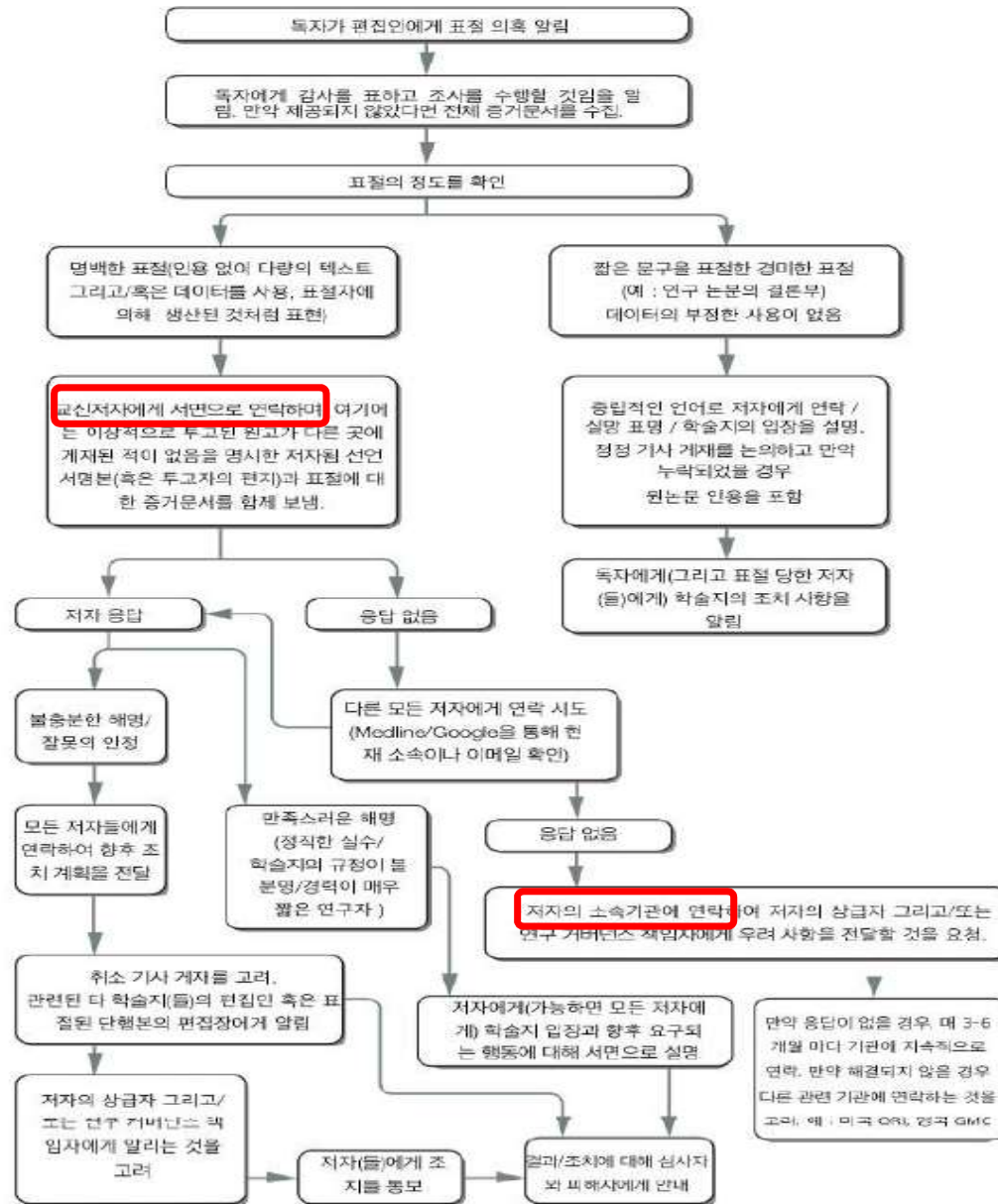
부정행위에 대한 가능한 대응책 (COPE Good Publication Practice, 1999)

다음 [제재]는 대략적인 강도의 순서를 반영하고 있다.

- (1) 원칙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저자에게 편지를 보내 설명(및 교육)한다.
- (2) 향후 연구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견책 및 경고장을 보낸다.
- (3) 관련 기관장 또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공문을 보낸다.
- (4) 중복출판 또는 표절 기사를 게재한다.
- (5)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사설을 게재한다.
- (6) 명시된 기간 동안의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향후 투고를 받지 않는다.
- (7) 논문을 과학 문헌에서 정식으로 취소(withdraw)하거나 철회하고, 다른 편집인 및 색인 기관에 알린다.
- (8)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영국의료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또는 그에 준하는 당국이나 기관에 보고한다.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b) 게재된 원고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참고
투고 규정에는 표절의 정의와 해당 학술지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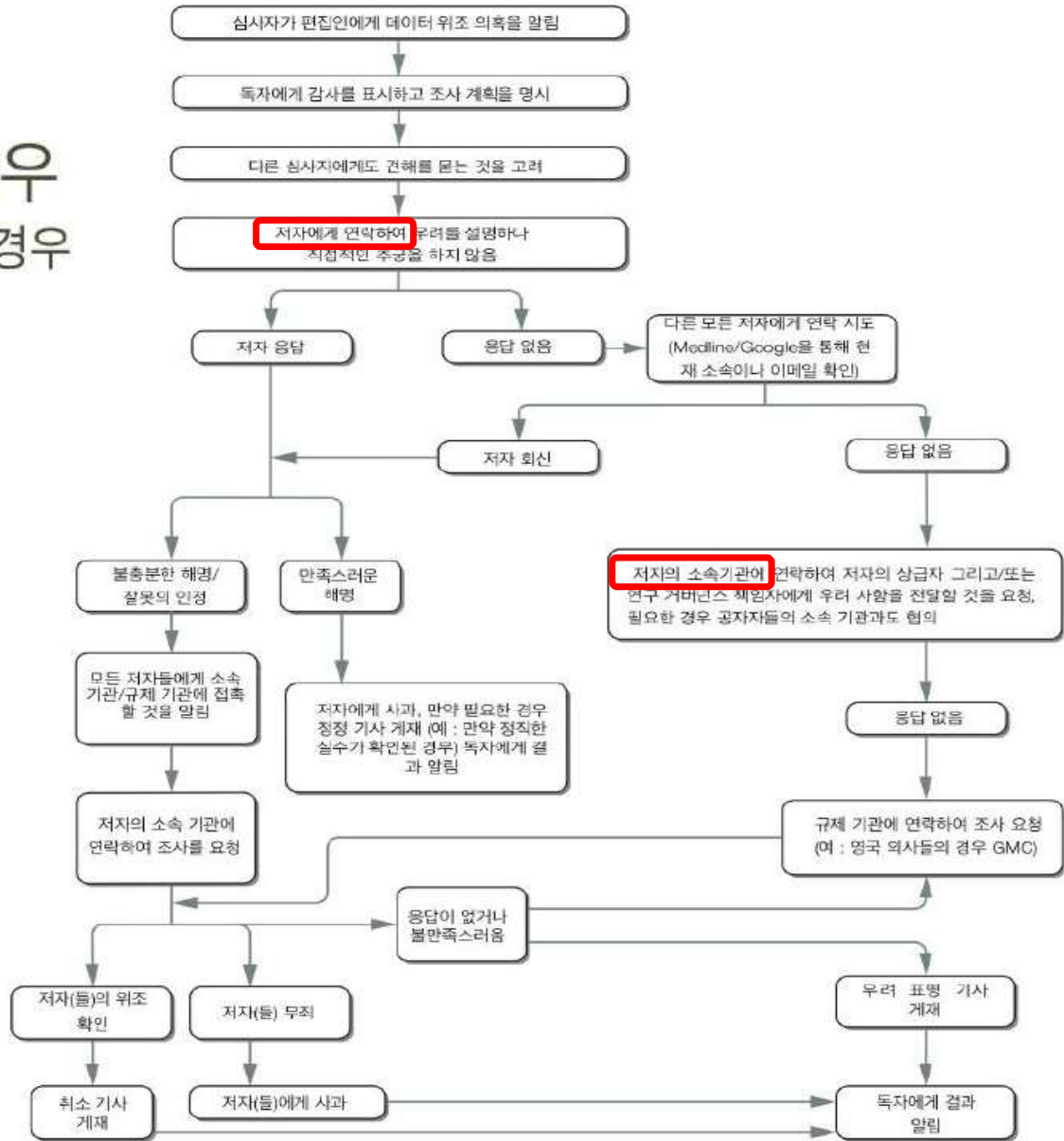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번역서)』 199쪽

COPE를 위해 Sideview의 Liz Wager가 개발. (www.lizwager.com) © 2016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C BY-NC-ND 3.0)

이 홈페이지의 게시물에 대한 통상 사용권 문의: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데이터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b) 게재된 논문에서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번역서)』 201쪽

결론

- 학술 출판에 참여하는 편집인과 편집진은 국제 지침을 참조하여 윤리적인 연구출판을 실천하여야 한다.
-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진은 포괄적인 연구윤리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임무가 있다.
- 연구 윤리의 진작을 위해서는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진은 연구 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